

인공지능 알파고 시대의 부모교육*

전희일**

요약

1920년대부터 시작한 부모교육은 시대에 따라 문화가 발전되면서 그 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 있는 시대 즉, 알파고 시대이다. 알파고 시대에는 알파고 시대에 걸맞는 부모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부모교육은 아동발달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발달, 그리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아이를 낳아 자연스럽게 얻어진 부모라는 이름뿐 만이 아닌 내 아이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 부모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부모교육이나, 불확실한 부모역할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면 이는 부모교육의 심각한 질적 문제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유아교육 기관이나 학교 등에 맡기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부모교육, 부모역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알파고 시대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주로 많이 해왔던 의사소통교육 이외에도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역할 교육, 어릴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토론교육, 자녀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부모역할 교육과 창의성, 인성, 감성, 책임성, 목표성 있는 부모역할교육(5성 교육), 자존감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부모역할 교육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자녀로 양육되도록 지도해야 하는 부모역할 교육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적 부모교육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교육! 아이들이 살고, 가족이 살며, 국가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며,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다. 미래를 여는 열쇠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부모역할교육이다.

주제어 : 입양, 부모교육, 입양부모과업

* 알파고(AlphaGo) :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관장·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이사장

Corresponding Author: Hoe-II Jeon, Songpa Kids Cultural Center, 235 Chungdaero, Songpa-gu, Seoul, 05661, Korea, E-mail: fky443@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에 이르러 핵가족화, 출산 자녀수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는 양육방식이나 부모-자녀관계 양상에 변화를 가져온 한편,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막연해 하거나 불안해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은 경제적 문제나 사회정책 등 현실적인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아이의 발달특성이나 양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부모교육은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오래된 용어이다.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말한다.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주기 위하여 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장원동외, 2012, 재인용). 이렇게 부모교육은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리고 크로우크(Croake)와 글로버(Glover)는 “부모교육을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주기 위하여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부모의 목적적인 학습 활동이다”고 정의한다(박성연 외, 2014, 재인용).

이와는 달리 부모교육자의 자질향상과 부모의 역할수행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부모교육자와 부모, 예비부모, 그리고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문제와 자녀교육문제를 내용으로 모든 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하는 활동을 부모교육으로 보기도 한다(한국부모교육학회, 1997).

부모교육은 또한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차적인 예방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방이란 말에는 어떤 행동을 함축하고 있는데 부모교육은 결국 부모가 부모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예방책인 셈이다(이재연 외, 1992).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부모교육은 부모역할하기와 부모참여란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모역할하기(parenting)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며, 부모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지도하는 형제자매, 또래집단, 친척, 교사 등도 포함된다. 부모역할하기는 어머니 역할하기

(mothering)와 아버지역할하기(fathering)로 세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란 용어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부모를 참여 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의 한 목표였다. 부모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를 보조해 왔다. 부모는 정책수립자로서, 자기 자녀에 대한 효과적 교사로서, 학교나 유아교육시설의 지원자로서 유아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부모개입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가 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모든 유아교육기관에 확산되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유아교육 기관이나 초등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많이 다루어 왔다. 또한 지역사회 단체나 대학에서도 부모교육을 수없이 교육해왔다. 부모교육 관련 책자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그 결과나 영향 면에서 석연치 않은 감이 있다. 세간에서는 ‘이제는 부모교육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 어떤 의미일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부모교육의 의미를 이제는 좀 더 생애발달 과정을 이해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목적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부모역할의 의미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만(Harman)과 브림(Brim)은 ‘훌륭한 부모’란 규칙 추종자,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부모, 아동발달을 이해하는 부모, 가정관리자로서의 부모,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부모, 문제해결자로서의 부모,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부모라는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객선영(1985)은 부모들에게 성인으로서, 효율적인 교사로서의 부모역할을 증진시키고, 유아발달과 교육에 대한 적절한 지식 및 능력을 갖추도록 도모함으로써 부모 자신의 도야는 물론 교육자, 교육동반자로서의 부모가 되도록 하는데 부모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장원동 외, 2012, 재인용).

그렇다면 여기서는 부모교육이 달라져야 하는 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지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영유아의 주 양육자인 부모는 물론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양육자인 영유아교육기관의 모든 원장님들과 교사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역할은 매력적이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이다.

이에 덧붙여 맞벌이가족의 증가, 사회적 환경의 복잡화와 다양화 등 현대사회가 갖는 특성

1) 출판 그룹 김영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육아와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8.5%를 차지해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으로 인해 부모역할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어려워진 상황¹⁾ 속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새로운 부모역할이 필요성하다. 부모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거나, 양육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최근 사회변화와 함께 부모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으나, 부모는 여전히 다른 사회화 대행자보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박성연 외, 2014).

II. 시대가 달라졌다. 알파고 시대는 부모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의 시대를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 후기산업사회, 융합사회, 불확실성의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 세계화 시대, 등 다양하게 시대를 정의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와 세계화를 거쳐 다원화 시대이다. 가치관도 변화되었고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융합되면서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이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이에 대응해야 하는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어서 우리의 삶과 미래는 교육에 의해 달라진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교육은 중요하게 여겨왔지만 현대사회만큼이나 혁명적인 문화, 문명의 변화를 겪으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는 없었다.

교육은 교육철학이나 방향이 중요하다. 교육철학과 교육의 방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환경은 계속 변한다. 교육은 이런 환경변화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중요한 특성은 ‘개방’과 ‘경쟁’과 ‘협력’이다.²⁾ 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원장과 교사들은 이로한 안목과 교육철학으로 아이들을

1) 정현숙과 유계숙(2001)이 언급한 어려움은 ① 부모됨의 선택의 어려움, ② 여성의 역할변화로 인한 어려움, ③사회의 기대, ④ 사회정책의 부재, ⑤ 새로운 역할모델에 대한 연구 ⑥ 가족구조의 다양성 등을 언급하고 있음.

2) 우종욱(2010).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 교육과학사.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국경이 없는 개방, 모든 지식과 정보가 공개, 개방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인으로서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협력정신, 9번째 지능(도덕지능)을 말하고 있는 영성실천지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회이다. 내적성숙(내공)이 없는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리는 교육을 지양하고, 인간관계와 친구를 중요시하는 등 바람직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우종욱, 2010).

교육은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중요한 책무이다. 언제부터인가 자녀의 교육을 가정에서의 부모의 책무에서 벗어나 학교로 학교에서 다시 학원으로 내던져졌다. 유아교육 또한 맞벌이 시대, 고소득을 필요로 하는 경제위주의 현대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역할이겠지만,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누리과정을 실현하는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이를 수행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평가인증에 치우치다 보니 창의성이나 특히 인성교육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수혜가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함께 교육 참여의 대상자인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또한 1년에 겨우 형식적인 2차례의 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그것도 학부모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본 기고자는 다른 강사와 함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에 걸쳐 서울시 송파구 소재 유아교육 기관 80여 곳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기부 형태로 “적극적 부모가 되자”란 주제로 새로운 부모역할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다.

이때 부모들의 참여율은 역시 저조하였으며 참여자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즉,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잘”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였고, 많은 부모들이 발달주기에 따른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시대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참여 학부모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심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교육도 달라져야 하며, 부모교육 또한 달라져야 한다. 올바른 부모역할은 다음세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필수 교육이며 훈련이며 책임이다. 부모역할이란 훈육과 대화와 지지에 해당하는 수많은 기술과 함께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이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위에 훨씬 잘 반응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부모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홍경자 외, 2013). 적극적인 부모에게서 적

극적인 자녀가 나오고, 적극적인 자녀로부터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서 ‘적극적인 부모역할 하기’란 범국민적 운동이 전개되기를 요청한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율적이며 자존감 높은 자기주도적 긍정성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다음세대의 인재강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은 뛰어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계속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외국과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현황

유아교육 기관에서 원장과 교사들의 역할은 다양하다. 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적 역할, 부모(부모역할과 부모노릇)에 대한 교육의무, 문제아동 상담, 교육관찰 일지작성, 시설전체 행정 및 관리, 지역 네트워크 등 많은 교육적, 행정적, 관리적 수행들이 있다. 이 가운데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서두에서 밝힌 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강사비 문제라던가 학부모 참여율이 낮아 교육자체에 대한 무의미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보육과 육아지원은 50% 미만의 영향력만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유아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는 부모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에 반해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부모교육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에 앞서, 먼저 외국의 경우를 보자. 북유럽 국가 등 선진 국가들의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는 지 대략적으로 살펴본다.¹⁾

1. 핀란드의 교육

숲과 호수와 음악의 나라이면서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결과 최 상위권을 최장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 핀란드 교육은 경쟁을 추구하기 보다는 협력에 가치를 두는

1) EBS 방영 <세계의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임.

평등교육을 하고 있다. 핀란드의 유아교육의 목표는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한다’는 것이다. 모든 활동과 학습은 자기주도적이며 자기 선택적이다. 실내 활동보다는 실외활동이 많다. 실생활을 통해 직접 경험학습을 수행한다. 책보다는 현장중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놀이와 경험학습 중심으로 집중력 있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진다(EBS, 세계의 교육현장, 2014).

핀란드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중학교(종합학교) 졸업생의 50% 정도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40% 이상의 학생들이 직업학교로 진학한다(핀란드 통계청, 2014). 높은 직업학교 진학률과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효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학생들은 성적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전공이 학습동기가 되어 직업학교에 가게 된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가운데 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직접 실습을 해 본다는 것이다. 해보면서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핀란드 교육철학은 참여 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학교교육에서 이미 실천하고 연습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이 이뤄지기 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시인이자 교사인 도중환은 시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에서 핀란드 부모를 이렇게 표현했다. ‘꼭 빠져서 놀 줄 알아야 집중력이 생긴다고 믿어, 몇 시간씩 놀아도 조용히 해주는 부모. 바람과 눈 속에서 실컷 놀고 들어와야 차분한 아이가 된다고 믿는 부모’. 이처럼 핀란드 부모는 ‘아이에게는 모두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자유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면서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1위, 국가경쟁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배우는 법을 터득하게 하고, 아이들을 공감하고 존중해주며, 이야기 대화법을 가정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잠자는 것도 공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의 70%가 핀란드는 숲에서 아이들과 휴일을 즐기며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숲에서 스토리텔링하며, 숲에서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별자리에서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2. 스웨덴의 교육

1) 독립심, 자립심 교육이다.

스웨덴 교육은 유아에서 초등학교에 가기까지 자율성과 책임성 교육에 집중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책임지는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국내 또는 해외여행하기를 즐겨한다. 스웨덴의 성인연령은 18세부터인데 이미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부모 집을 떠나간다. 우리나라의 18세 아이들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때 까지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를 품안에 품고 있어야 한다.

2) 스웨덴에는 성에 대한 차이가 없다.

성 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남녀 평등이 가장 확실한 나라이다. 그러다보니 선택의 여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문제해결능력이 월등 높아진다. 남자아이가 음식을 못하는 경우가 없다. 음식을 잘하는 남자아이는 파티에 초청되기도 한다.

3) 스웨덴은 문화, 통념, 인습 등이 전승되지 않는다.

사회의 통념 속에는 많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들은 전승이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이것이 창의성 교육이다. 스웨덴 가족은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함께 다양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저녁이 없는 사회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저녁에 학원가야 되고 또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오직 공부, 공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인재강국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예측 결과와는 달리 많은 교육의 후유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저녁에 가족이 모여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함께 소통하면서 인재강국의 초석을 만들어 가고 있다.

4) 스웨덴의 일과 육아는 공동육아, 공동가사 역할이 있다.

남자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남자가 일과 육아와 가사를 돌본다. 선진교육은 바로 성 평등과 교육의 평등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3. 미국에서의 유대인 교육

세계인구의 0.2% (640만 명)가 유대인들이다. 그 중 200만 명이 미국 뉴욕에 살고 있다. 미국억만장자의 40% 이상이 유대인들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의 45% 이상이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유대인 교육은 밥상머리교육으로 유명하다. 일주일에 금요일이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다. 밥상머리에서 2-3시간 동안 부모들은 자녀와 소통한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다. 유아 때부터 익숙한 토론수업이다.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히브리어 교육을 3세부터 시작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익히게 한다. 아빠는 유대인들의 전통교육인 토라교육, 탈무드 교육을 한다. 가정교육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대화를 통해 자녀를 설득하고 다양한 제안을 이끌어 낸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인내와 열정이 필요한 데, 기꺼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 부분을 할애한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여 산아제한을 하지 않으며, 자녀와 함께 할라 빵을 만들고 장난감 놀이를 같이 한다. 여기서 아이들의 사고의 유연함과 다양한 생각들을 창출해 낸다. 가정교육이 살아 있는 나라이다. 스티븐 스피버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트 등이 이 나라에서 교육받은 유명인들이다.

4. 한국 교육(보육)의 현실

한 조사에 의하면¹⁾ 한국 사회의 불안 제1요소가 교육이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비 지출(공교육+사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만이 폭발적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고 있고²⁾, 하향 비(非)평준화로 인한 학교교육의 질 저하, 학교불신, 사교육 양등, 교육이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 교사의 집단화로 교육계를 포획하고 있고, 시대착오적 교육 시스템으로 학교 교육은 21세기가 아닌 20세기적 산업사회의 집단적, 대량 표준교육의 덩어리에 걸려 있다고 이 조사는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점수 만능주의와 입시 편향의 주지교과 편중교육, 교사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객관식 선다형 시험문제, 석차로 줄 세우기 등 낡은 평가

1)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대표, 인천대학교)교수 “한국교육의 현실진단과 개선방향” 글에서 발췌

2) 동일한 교과서, 동일한 교육커리큘럼, 각종 행정지시 감독 규제, 표준화된 교실 등

체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을 인정할 때 한국의 교육은 실패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청화된 학교와 관료화된 교사, 교육수요자를 도외시한 시대지체적인 교육의질, 평준화 정책의 오점 등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의 실패에 학부모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를 손 놓게 하는 교육정책도 문제지만 부모가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는 바로 부모교육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초, 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모교육은 거의 형식적이었으며 이벤트적인 행사로 끝나고 있어 이는 참교육의 부실을 가져오게 한 것이 되고 말았다. 교육은 국가의 독점물도 아니고 헌법정신이 밝히고 있듯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교육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귀중한 미션이다. 교육기관도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에 놓여 있다.

최근 대한민국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왕따,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파렴치한 문제와 영유아 아동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폭력행위 등 공교육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부모역할의 부실로 나타나는 가정부적응, 사회부적응 등 문제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부터 강조되어 온 ‘자기주도적’이란 개념은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채택한 평가방식이면서 모든 교육계에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지해 왔던 주입식 암기위주의 교육 및 평가방식이 쉽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부모는 오직 내 자식이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경쟁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을 마음껏 간섭하고 있고, 자녀들 또한 물질만능주의, 권위주의, 경쟁적 진학주의 등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쉽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전락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는 많은 문제점들과 교육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교육은 혁신되어야 한다. 교육의 혁신으로 새로운 교육문화와 풍토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새로운 부모역할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 교급에 따른 부모역할 교육이 새롭게 혁신되어 거듭나야 한다.

IV. 알파고 시대 부모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생애발달 주기에 따른 부모역할교육을 하자.

모든 부모의 소망은 자식을 “잘”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크고 있을까요? 자녀를 잘 키우는 문제는 어떤 잣대를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이면서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가소성(유연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부모교육은 아이들의 가소성 발달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아이들의 발달주기를 살피면서 부모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뇌가소성(可塑性, plasticity)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뇌 발달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데, 뇌 발달은 학습 환경이 중요하여 외부자극, 경험학습 등을 통하여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와 운동 등을 습득하게 된다. 학습 환경은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유아교육의 학습 환경은 바로 부모의 몫이다. 즉, 부모의 역할이 유아교육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고 있다.

아이가 잘 크려면, 생각(사고)이 잘 발달해야 하고, 감정도 잘 발달해야 한다. 또한 행동(의지)도 잘 발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발달 중 어떤 순서로 발달하는 것이냐가 문제인데, 유아 때는 행동 즉 의지의 발달이 중요하다. 의지의 발달은 유아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이다. 이어서 초등학교 때는 감정의 발달, 중학교 때에는 사고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러한 발달순서를 부모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생애발달 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부모역할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모들은 이러한 발달순서를 무시한 채 무작정 부모의 기준에 좋은 것만 찾아 아이에게 주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풀을 그냥 잡아당기면 뿌리 채 뽑히면서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의 부모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

2. 토론(언어)교육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교육하자.

위에서 밝힌 대로 뇌가소성을 발달시키려면, 먼저 유년시절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언어노출(language exposure)이란 대화, 강의, 놀이, 노래, 토론, 논쟁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경험을 의미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듣기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언어노출 과정이다. 어린 시절 이 언어노출 과정을 놓치게 되면 커서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언어노출, 즉 어휘들을 외우는 등의 지식축적 과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소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뇌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경우 노인이 돼서도 창의성 등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이 뇌 기능을 저하시켰을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저하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최근 토론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토론수업이 교육기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태인들이 방과 후 가정에서 토론교육을 진행하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나 대화가 절실하다. 교육기관에서 이런 강조점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할 몫이다.

3. 자녀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부모역할교육을 하자.

부모중심 시각에서 자녀를 보지 말아야 한다.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 아이의 기대는 무엇이며, 아이의 흥미가 무엇인지, 아이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지 등을 살펴야 한다. 즉, 수평적 부모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직적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아이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 부모들은 그 때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하여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 본대로 유럽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의 부모역할을 모델삼아 좋은 점을 수용하는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창의성, 인성, 감성, 책임성, 목표성 있는 부모역할교육(5성 교육)을 하자.

21세기 교육의 중요한 화두는 5성 교육이다. 부모에게 이를 교육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선진 리더들로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부모가 5성교육을 먼저 받고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해야 한다.

융합사회에 창의성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가득찬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도덕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협력적인 인성을 소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서 감정을 조절하면서 나와 생각과 감정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화해자, 통합자의 특성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위한 감성코칭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정서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감성코칭은 가장 좋은 부모역할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감성코칭이란 부분에서 부모들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자녀들을 정서가 풍요로운 감성적 자녀로 성장시키려면, 유아기부터 감성코칭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성 있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책임성은 민주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역량이다. 어릴 때부터 진로가 보이는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적성과 가치와 흥미와 관심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게 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유아 때부터 교육하여, 자신의 국가와 세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유아교육 기관에서 부모교육 시 반드시 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올바른 역할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자존감 있는 자녀로 양육되도록 부모역할 교육해야 한다.

4세-7세 사이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모역할의 과제는 자녀의 자존감 형성의 문제이다. 이 시기의 부모역할에 있어서 아이의 자존감의 구성이 제대로 확립되도록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최고의 부모일 것이다. 자존감의 구성내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되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혼자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스스럼없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 강점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을 때 높은 자존감으로 다음세대에 자신감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새로운 일에 도전적이 되며 스트레스와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녀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부모역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6.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자녀로 양육되도록 부모역할 교육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큰 두 기둥이라 한다면,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이다. 이 시대를 알파고 시대라면 창의성과 인성교육은 영, 유아기부터 이뤄져야 함은 이제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이런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중요한 약점이 인성의 부족과 창의성의 부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없었으며, 인성교육 또한 수직적으로 줄 세우는 1등 교육 위주였고 또한 학원중심교육으로 사교육 몰입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남을 딛고 무조건 내가 1등해야 한다는 비인성적 교육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해결역량이 부족하고 창의성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대는 21세기이고 빠른 변화속도와 무한한 지식정보가 흘러넘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산적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려면 바로 창의적인 문제해결역량을 유아기부터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창의역량과 문제해결역량은 하루아침에 쉽게 획득되는 개념이 아니다. 유아기부터 꾸준히 획득해 나가야 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바로 부모역할을 통하여 획득해야 되는 능력이다. 이런 역할교육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으로 수행하면서 평가해 나가야 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적 부모교육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적 부모역할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어머니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이제는 이를 아버지 교육, 조부모 교육으로 확대되어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부모교육도 평등교육이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일과 육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남녀가 같이 공동육아하고 공동가사를 해야 한다. 남자는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향상되고, 건강한 가정 상을 확립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환경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부모역할이 수행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부모들도 시대

적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변화된 의식을 갖고 이제 새로운 부모역할을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V. 나가는 말

지금은 알파고 시대이다. 알파고 시대에는 알파고 시대에 걸맞는 부모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부모교육은 아동발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발달, 그리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아이를 낳아 자연스럽게 얻어진 부모라는 이름이 아닌 내 아이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 부모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유아교육 기관은 생애 초기의 자녀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할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새로운 알파고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 부모역할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요즘 현대사회는 부모의 역할,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다양해지면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모델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의 모든 성장과 발달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유아들을 위탁받아 보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기관은 기관 내의 부모역할 교육을 통해 부모가 부모됨의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자녀의 교육에 적합한 교육정보를 선택하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효과적인 교육지원자 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해야 한다.

부모역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직업 중의 하나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상당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다면, 미래를 여는 열쇠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알파고 시대인 이 시대를 알고 미래를 예견하여 앞서나가는 교육자라면, 이제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적극적 부모역할’(Active Parenting)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만 남았을 것이며, 이 사역이야말로 더 없이 멋있고 좋은 교육적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필자 또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성연·김상희·김지신·박응임·전춘애·임희수(2014). *자녀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우종옥(2010).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재연·김경희(1992).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장원동·류현수(2012). *부모교육*. 서울: 태영출판사
-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전혁(2006). 한국교육의 현실진단과 개선방향. 연구논문. 한국선진화 포럼.
- 홍경자·노안영·차영희·최태산 공역(2013).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 서울: 학지사
- 한국부모교육학회 편(1997). *부모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